



효심 지극 불심 돈독

배우 엄정화 엄태웅 ·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4월 12일 건국대학교 새천년 홀에서 "Thank you 콘서트"가 열린다.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 (감독 권형진, 제작 싸이더스FN에서 주연을 맡은 불자 배우 엄정화가 영화음악 감독 이병우씨 등과 함께 여는 이색 콘서트다. 자존심만 남은 철없는 피아노 선생님과 천재적 재능을 가진 소년이 우연히 만나 진정한 사제지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휴먼드라마 "호로비츠를 위하여"는 5월 25일 개봉 예정이다.

지난해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오로라 공주' 등에 출연하고 올해 새 작품으로 조용하 영화촬영에 들어간 배우 엄정화가 불자라는 것은 유명하다. 지난해 KBS 드라마 '괘걸춘향' '부활' 등으로 엄포스라는 별명을 얻으며 톱클래스의 배우로 그 연기력을 인정받은 엄태웅 역시 불심이 돈독하다.

이들 남매가 인연 맺고 있는 사람은 종교로 승인동의 대한불교관음종 총본산

묘각사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의 주석사찰이다. 어머니 유덕련님 보살과 함께 20여년 이상 묘각사에 다닌 이들은 유명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에도 여전히 스님을 찾아 고민을 풀어놓는다.

"유덕련님 보살이 합창단 단장으로 10년이 넘도록 활동했고 지금은 신도회 부회장과 합창단 명예단장을 겸임하는 등 절일이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합니다. 전화통화가 힘들 때는 엄마를 통해 스님과 상담한다. 아무리 스케줄에 쫓겨도 1년에 2-3번은 스님을 만나 만나질 이상 속 깊은 대화를 나눈다."

엄정화는 일이 힘들거나 외로울 때 홍파 스님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한다. 전화통화가 힘들 때는 엄마를 통해 스님과 상담한다. 아무리 스케줄에 쫓겨도 1년에 2-3번은 스님을 만나 만나질 이상 속 깊은 대화를 나눈다.

홍파 스님은 "정화양 태웅군이 연예인이 되기 전 어렸을 때부터 쪽 봐왔는데 둘 다 효녀 효자인데다가 독실한 불자들이라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의외로 의



홍파 스님에게 세배하고 기념촬영한 엄정화(오른쪽) · 엄태웅 남매.

10년 넘게 합창단 활동한 어머니 영향으로 인연 바쁜 일정에도 틈틈이 인사상담 수행생활 열심

로운 직업인데 힘들 때 함락에 빠지는 것보다 불심에 매달릴 것을 말하면 잠들 따라와줘서 고맙다"라고 이들 남매를 칭찬한다.

엄정화 엄태웅 남매는 새해 초 스님을 찾아와 세배하는 것을 한해도 거르지 않는다. 올해도 남매가 나란히 스님을 찾았다.

4남매의 둘째인 엄정화와 막내인 엄태웅은 절에 같이 다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 엄마 손 잡고 절에 다니던 엄태웅은 누나보다 뭐든지 잘하고 싶어했다. 불심에 있어서도 스님은 누나보다 동생이

한 차원 높은 것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릴 정도.

엄태웅은 절에 오면 108배를 하면서 불심을 다진다. 수행생활도 누나보다 잘하려고 '억척스레'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정화양 태웅군이 엄마의 지극한 신행에 감화했기에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수행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큰딸 정혜, 셋째 정선양 등은 가족이 절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불자가족"이라는 홍파 스님의 말처럼 엄정화 엄태웅 남매의 가족 불심은 묘각사에서 으뜸이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세레나데 · 반야심경 등 연주

'부처와 모차르트의 만남' 템플스테이, 테마 연주 계획

석가모니 부처님 탄신과 모차르트 탄생 250년을 기념하는 연주회가 열린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 이하 니르바나)가 4월 11일 오후 7시 30분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제8회 정기연주회 '부처와 모차르트의 만남'을 개최한다.

서울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부처와 모차르트의 만남'은 모차르트 세레나데를 시작으로 찬불가 '우리도 부처님 같이' '기쁜 날' 등이 연주된다. 니르바나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창작곡들도 풍성하다. 황호준씨가 작곡한 '반야심경'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이수자인 문현 박사가 노래하는 <반야심경>으로 동·서양 음악의 만남을 시도한다. 지원석씨의 '물비니 동산에' '마하반야바라밀'은 현악 위주의 클래식 창작곡이다. 이진구씨가 작곡한 '내 마음의 부처'와 유정미씨가 전자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열반' 등도 첫 선을 보인다.

김지연 기자

모차르트 심포니 40과 25 1악장은 재즈로 편곡해 'I Love Mozart' 'Viva Mozart'라는 제목으로 편곡자 김민정씨가 직접 피아노 연주를 들려준다.

한편 니르바나는 올해 '니르바나 연주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계획하고 있다. 5월 27-28일 내소사의 봄, 7월 7-8일 미향사의 여름 등을 통해 산사체험과 함께 클래식 연주, 한국시조문학진흥회의 국악연주와의 어울림 마당을 펼친다. 불교문화유적지 답사와 연주를 연결해 6월 중에 서산보원사지 연주회와 경주 남산 답사 연주 등도 추진 중이다.

'니르바나의 테마가 있는 연주'도 마련한다. △불교, 영화 그리고 음악 △불교, 천문학 그리고 음악 △불교, 미술 그리고 음악 △불교, 요가 그리고 음악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월호 스님 이호신 화백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대담도 하고 연주도 듣는 시간을 구성하고 있다.

3년 동안 이어온 소아암 환자를 위한 음악회도 11월 말 경 대원정사의 전역 지원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열반' 등도 첫 선을 보인다.

생로병사를 보는 동양인의 '눈'

아리랑TV 매주 월·화 '미스터리 아시아' 방영

아시아 문화 다룬 다큐멘터리

서양인들은 아시아의 문화에서 미스터리를 본다. 그러나 아시아인들은 과학이라고 말한다. 서양인들은 아시아의 문화에 이니그마(mystery) 수수께끼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시아인에게 그것은 생활일 뿐이다.

아리랑TV가 3월 27일부터 매주 월·화 밤 11시에 방영하는 '미스터리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눈으로 바라본 생·로·병·사에 대한 아시아 문화의 수수께끼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다.

'서양인은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드는데, 왜 동양인은 공중부양으로 스스로 날고자 했을까'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부터 시작한다. '무엇으로 죽는가-닌자' (3월 27일)를 시작으로 '여자와 남자-카마수르타' (28일), 동양의 운명학 관상을 다룬 '얼굴, 내

안의 운명-관상' (4월 3일), '몸 안의 우주-기' (4일) 등으로 동양정신을 조명한다.

이어 티베트 북쪽의 서라 사원에서 치르는 전통 장례의식을 다룬 '조장' (18일), 수행을 통해 얻은 경공술로 증력을 초월한다는 이야기인 '가벼워지려는 육망-경공' (25일) 등은 동양인이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주제들이다.

고대부터 인간과 신을 연결해 왔던 중간자 무덤을 조명하는 '신과 인간 사이-무덤' (10일), '칭기즈칸'의 무덤에 얽힌 의혹을 파헤친 '바람으로 날다-칭기즈칸' (11일), 몽골인이 혼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미'를 소개한 '바람과 대지의 노래-호미' (17일), 중국 진시황이 평생을 갈구하고 찾아 헤맸던 '영원을 남기다-불로초' (24일) 등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김지연 기자



'황금탱화·불화展'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이수자 이연욱씨(화공 제1088호·사진)가 '황금탱화 및 불화전'을 4월 3-8일 수원 경기문화재단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황금탱화 18점, 황금단청과 황금달마도 등 3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단청장 이수자 이연욱씨는 "옛 기법

을 응용해서 작업한 황금탱화는 순금을 붙이고 그 위에 석회와 안료를 가미해서 탱화를 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2년 제14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에서 우수상 수상을 시작으로 꾸준히 불미전과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등에 출품해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인정받아 왔다. (031)295-2985

김지연 기자

한국적인 문화프로그램 신설

불교TV, 미주 겨냥 봄 개편

불교TV가 3월 27일부터 미주방송을 겨냥한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문화프로그램을 신설 전진 배치했다.

"나를 찾아 떠나는 길, 암자' (매주 수요일)는 한국의 대표적 수행처 암자를 기행하면서 느끼는 출연자의 사색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구성한다. 궁중요리 연구가 '한복식의 한국전통음식' (매주 화요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제철음식 웰빙 상차림을 선보인다.

차를 통해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제시할 '천년의 향기, 茶' (매주 금요일)는 삼독으로 가득찬 자신의 삶을 지혜와 보시, 자비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차를 마시면서 배운다. 건축 공예 도예 소리꾼 화가 등 불교계 예술인들을 찾아 인생역정을 듣는 '한국의 장인' (매주 월요일), 고려대장경 발우공양 출가 등을 다룬 정통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특선다큐멘터리' (매주 수요일), 한 주 동안의 교계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사대거전 현장과 사람들' (매주 금요일) 등이 첫 선을 보였다. '新 충성! 성불하십시오' (격주 1회는 전국의 군부대를 순례하면서 '생활 속의 군대, 생활 속의 불교'를 위한 군 포교의 프로그램이다. 김지연 기자

공예아카데미 CEO 과정 개설

한국공예문화진흥원(원장 권오인)은 한국공예산업의 지도자 육성을 위해 '공예아카데미 CEO과정'을 개설한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공예아카데미 CEO과정'은 4월 6일부터 7월 6일까지 한국경제신문 한경아카데미에서 열린다. '목아박물관 경영이야기' '공예품 속의 정신과 문화 이해' '인도네시아 공예산업 현장 탐방' 등의 강의가 마련된다. (02)360-4886

현대불교문화상 시상식, 15일

조계종 문화부는 4월 22일로 예정됐던 제11회 현대불교문화상 시상식이 4월 15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고 일정 변경을 공고했다.

불자가수 김중국 군입대

불자가수 김중국이 3월 30일 오후 1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시작했다. 기초군사훈련이 끝나면 서울 용산구청에서 23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김중국 측은 병무청에 음반활동 일정과 함께 국민적 성원을 받고 있는 월드컵을 사유로 입대를 연기하려 했지만 무위로 돌아가 갑작스럽게 입대하게 됐다.

봉축위원회 공식지정 봉 축 현 수 막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 환영 (서울지역 시공가능, 설치비 별도)

불기 2550년 5월 5일(사월초파일)

부 처 님 오 신 날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불기 2550년 5월 5일(사월초파일)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대한불교조계종 약사사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세로 현수막도 제작 가능

◆ 지아철(장엄)현수막

우리도 부처님같이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화재연려 없는 T형 일체식 케이ابل ※ 실용신안등록 제품!

◆ 티셔츠 (100매이상 사할명 인쇄)

풍치스님 판화 작품

◆ 알차마
색상 : 군청, 주황, 연두, 노랑, 분홍, 핑크, 녹색

◆ 봉축 어깨띠
색상 : 주황, 하늘, 군청, 분홍, 연두, 노랑, 분홍, 하늘, 연두 (사할명 인쇄 가능)

◆ 봉축 캐릭터 등
색상 : 적색, 분홍, 녹색, 노랑, 청색

◆ 봉축 타이슬링

◆ 연꽃타수 (100매이상 사할명 인쇄)

◆ 연꽃수건
색상 : 주황, 진녹, 밤색

◆ 봉축 리본

◆ 불자의 집 교배

◆ 오신불 열쇠고리 (200개이상 사할명 인쇄)

◆ 황금목탁 핸드폰걸 (24K 도금)

◆ 봉축 캐릭터 풍선

(비림날은 손펌프도 있습니다)

◆ 봉축 장엄 번 제등행렬용

◆ 연꽃타수 (100매이상 사할명 인쇄)

◆ 봉축 버튼

◆ 부채

◆ 자외선차단 썸캡
색상 : 핑크, 청색

◆ 아동모자
색상 : 핑크, 노랑, 청색

◆ 성인모자
색상 : 청색, 녹색

봉축위원회 공식지정업체 **감로기획**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대표전화. (02)723-4306 | 팩스. (02)738-8682 | 홈페이지 : www.gamro.net | E-메일 : gamro4306@hanmail.net